

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현지반응과 중소기업 수출유망품목

CONTENTS

목 차

요 약

I. 한-뉴질랜드 FTA 주요내용	1
1 1. 협상경과	
1 2. 상품양허 주요내용	
3 3. 투자 및 인력교류 주요내용	
II. 한-뉴질랜드 FTA에 대한 현지 반응 조사	5
5 1. 조사개요	
6 2. 설문조사 결과	
6 ① 상품 분야	
9 ② 투자 분야	
9 ③ 인력교류 분야	
10 3. 기업관계자 및 전문가 인터뷰 답변	
III. 한-뉴질랜드 FTA 중소기업 수출 유망품목	12
12 1. 조사 개요	
13 2. 수출 유망품목별 세부내용	
15 ① 브레이크 패드	
18 ② 시동용 배터리	
21 ③ 유기계면활성제	
23 ④ PVC 랩	
26 ⑤ 인스턴트라면	
29 ⑥ 배전용 변압기	
32 ⑦ 중장비 부착품	
35 ⑧ 철강제품	
38 ⑨ 양모사	
40 ⑩ 사무용 의자	
참고자료. 한-뉴질랜드 교역 및 투자 동향	43

요 약

□ 한-뉴질랜드 FTA 협상 경과

- (타결) '14. 11. 15. (가서명) '14. 12. 22.

□ 협상 주요내용

- 뉴질랜드는 7년 이내, 한국은 15년 이내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 (뉴질랜드) 품목 수 85.7%, 수입액 92.0%에 대해 즉시 관세 철폐, 100%에 대해 7년 내 관세 철폐
 - (한국) 품목 수 76.5%, 수입액 48.3%에 대해 즉시 관세 철폐, 품목수 97.5%, 수입액 96.4%를 15년 내 관세 철폐
- (투자분야) 양국 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 도입 및 뉴질랜드 사전투자심사제 기준액 타 FTA 체결국 대비 상향 조정
- (인력교류) 뉴질랜드의 한국 워킹홀리데이 인구 연간 쿼터 확대 및 고용제한 규정 완화, 총 200여명의 전문 직종 종사자 입국 보장, 농축수산업 분야 교육·훈련 위한 별도 비자 쿼터 제공 등

□ 한-뉴질랜드 FTA에 대한 현지 반응

- 설문대상 현지 기업 103개사 중 응답자의 88% “상품교역 증가 전망”
 - 전체 응답자 중 절반에 달하는 48%, “한국산 수입 확대 의사” 표명
 - * 품목별로는 식음료(60%), 섬유/의류(57%), 자동차부품(56%), 중장비(53%)
- 주요 기대효과는 “제품 인지도 상승 및 거래선 전환 효과”
 - 한국산 수입 확대 요인으로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상승(56%)이 1위,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인하(33%)가 2위
 - 현지 수입바이어 중 48%, 한국산으로 거래선 전환 의사 표명
 - * 이들의 기존 거래선은 일본(57%), 유럽(56%), 중국(44%), 호주(40%) 등
- 수출 유망분야는 기계류(36%), 자동차 부품(32%), 전기전자(20%), 섬유/의류(12%) 등

□ 한-뉴질랜드 FTA 중소기업 수출 유망품목

산업	품목명 (HS CODE)	기준 세율	양허 스케줄	'14 對뉴 수출액 (증가율)	MCA 지수	유망사유
자동차 부품	브레이크 패드 및 슈 (8708.30)	5	3년 철폐	0.57 (9.06)	0.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 상승으로 한국산 자동차 부품 수요 동반 상승 시장진입 장벽이 낮아 가격이 민감한 품목으로 관세 철폐 시 가격경쟁력 제고
	시동용 배터리 (8507.10) (8507.20)	10 /5	3년 철폐/ 즉시 철폐	0.08 (-10.69)	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산 자동차 수입점유율 상승으로 관련 부품 수요 동반 상승 가격경쟁이 매우 치열하여 관세 인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
석유 화학	유기계면 활성제 (3402.20)	5	즉시 철폐	4.57 (-0.02)	1.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질랜드 내 다수의 세제 제조사가 있어 원료 수요 증가 산업용에서 가정용까지 용도가 다양하여 진출 여지 높음
	PVC 랩 (3920.43)	5	즉시 철폐	0.27 (28.02)	0.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질랜드 식품산업 성장으로 관련 포장재의 수요 증가 FTA로 관세가 철폐되어 가격경쟁력 향상
식품	인스턴트 라면 (1902.30)	5	즉시 철폐	4.01 (1.04)	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특히, 인스턴트라면 등 일부 품목은 주류 식품 유통망에 진출하여 판매 중 FTA로 가격인하 효과가 있어 수요 증가 예상
기계	배전용 변압기 (8504.23)	5	7년 철폐	10.82 (169.12)	7.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질이 뛰어난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현지 바이어 수요가 높으며 FTA로 관세가 인하 되면 수입이 더욱 증가할 전망
	중장비 부착품 (8431.41)	5	3년 철폐	0.62 (68.17)	1.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질랜드 건설경기 호황으로 관련 기계 수요 증가 가격경쟁이 매우 치열한 품목으로 관세 인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
건축 자재	철강제품 (7326.19)	5	7년 철폐/ 즉시 철폐	0.16 (-36.72)	0.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질랜드 건설경기 호황으로 관련 건설자재 수요 증가 관세 철폐가 7년에 걸쳐 진행되어 단기간의 수출 증가요인은 낮으나 철강제품의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 기대
섬유, 의류	양모사 (5107.10)	5	7년 철폐	0.88 (-56.94)	1.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격경쟁이 매우 치열한 품목으로 관세 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 기체결국인 중국에 빼앗긴 시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기타	사무용 의자 (9401.30)	5	즉시 철폐	0.18 (-21.05)	0.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질랜드 경기호황으로 신규 사무용 가구 및 집기류의 수요 증가 바이어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 기대

I 한-뉴질랜드 FTA 주요내용

1. 협상 경과

□ 협상 경과 및 향후 일정

- '09년 1월 : 한·뉴질랜드 FTA 공청회 개최
- '09년 6월 : 제1차 협상 개최
 - '10년 5월까지 총 4차례 공식 협상 개최
 - 4차 협상 후 상품시장 개방 수준 등에 관한 양측 입장 차이로 협상 중단
- '13년 7월 : 뉴질랜드 총리 방한 계기 한-뉴질랜드 정상회담 개최
 - FTA 협상 재개 모색
- '13년 12월 : 한-뉴질랜드 양국 통상장관회담
 - FTA 공식협상 재개 합의
- '14년 2월 : 제5차 공식 협상 개시
 - 5차 협상 이후 총 4회 협상 실시
- '14년 11월 15일 : 한-뉴질랜드 FTA 타결 선언
 - 호주 G20 정상회의 양국 정상 발표
- '14년 12월 22일 : 한-뉴질랜드 FTA 협정 가서명
- '15년 상반기 정식 서명 추진

2. 상품양허 주요내용

□ 양허 수준

- 뉴질랜드는 발효 후 7년, 한국은 15년 이내에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 (뉴질랜드) 對한 수입의 92%(수입액 기준)를 즉시, 96.5%를 3년 내, 97.6%를 5년 내, 100%를 7년 내 관세 철폐
 - (한국) 對뉴질랜드 수입의 48.3%(수입액 기준)를 즉시, 61.8%를 5년 내, 78.3%를 10년 내, 96.4%를 15년 내 관세 철폐

□ 뉴질랜드 상품양허

-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타이어(기준세율 5~12.5%)/세탁기(5%)는 즉시, 냉장고(5%)/건설 중장비(5%)는 3년, 자동차부품(5%) 대부분은 3년 내, 철강제품(5%)은 대부분 5년 내 관세 철폐
 - * 우리 주력 수출품 중 승용차, 석유제품, 무선전화기, 칼라TV 등은 이미 무관세
- 뉴-태 CEP¹⁾(05년) 발효로 태국산 일본차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번 한-뉴 FTA를 통해 버스·트럭·특장차 등 상용차(기준세율 0~5%)에 대한 관세를 3년 내 철폐함으로써 수출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 확보
- 섬유 관련, 주요 수출품목인 모사·순모직물·폴리에스터사·편직물 등에 대해 7년 이내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중국산 섬유의 뉴질랜드 시장 잠식 견제

□ 한국 상품양허

- 다양한 예외적 수단* 확보를 통해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 * 양허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관세할당, 부분관세감축, 장기관세철폐 등
- 특히,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 199개는 양허 제외*,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민감 품목은 '10년 초과'로 장기 철폐하는 등 국내 민감 산업을 최대한 보호
 - * 쌀·천연꿀·과실(사과·배·감 등)·고추·마늘·녹각·오징어 등
 - 쇠고기의 경우, 15년 관세 철폐 양허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ASG)²⁾를 통해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여파 최소화
 - 탈전지분유·치즈·버터 등 낙농품 및 홍합의 경우, 과거 對뉴질랜드 수입 실적의 일부 물량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³⁾ 부여

1)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2) 농산물 세이프가드(Agricultural Safeguard), 농산물의 수입 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수입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해당 농산물에 추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농산물 수입 급증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3)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 일정 수입량은 무관세 혹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높은 관세를 부과

<한-뉴질랜드 FTA 전체 상품 양허수준>

(단위: US\$ 천, %)

양허유형	우리 양허				뉴질랜드 양허			
	품목수	비중	對뉴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對한국 수입액	비중
즉시	9,092	76.5%	568,606	48.3%	6,220	85.7%	850,163	92.0%
무관세	1,932	16.3%	459,555	39.1%	4,207	58.0%	698,395	75.6%
유관세	7,160	60.3%	109,051	9.3%	2,013	27.7%	151,768	16.4%
3년 철폐	960	8.1%	141,362	12.0%	488	6.7%	41,138	4.5%
5년 철폐	394	3.3%	17,222	1.5%	275	3.8%	10,685	1.2%
6년 철폐	1	0.0%	53,982	4.6%	-	-	-	-
7년 철폐	347	2.9%	87,114	7.4%	273	3.8%	22,106	2.4%
10년 철폐	362	3.0%	17,206	1.5%	-	-	-	-
10년 초과	496	4.2%	225,866	18.2%	-	-	-	-
계절관세	1	0.0%	11,457	1.0%	-	-	-	-
양허 제외	199	1.7%	2,039	0.2%	-	-	-	-
총 합계	11,881	100.0%	1,176,437	100.0%	7,288	100.0%	927,154	100.0%

주: 품목 수는 HS 2009년, 수입액은 '09-'11년 수입액 평균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14.12월)

3. 투자 및 인력이동 주요내용

□ 투자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⁴⁾ 도입 및 뉴질랜드의 투자 사전심사제 기준 금액 상향 조정
 - *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기체결 FTA에서 사전투자심사 기준액을 2,000만 NZ달러 이하로 설정했으나, 한-뉴질랜드 FTA에서는 5,000만 NZ달러로 상향

□ 인력 교류

- (워킹홀리데이) 연간 쿼터(1,800명→3,000명) 확대, 연수·교육 및 고용기간 제한 조건 완화
 - 연수 교육기간 기존 3개월 → 6개월로 연장
 - 고용기간 기존 '동일 직장에서 3개월까지' → '동일 직장에서 영구고용만 금지'로 완화

4)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nvestor-State Dispute),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

- (일시고용입국) 총 200명에 대하여 한국인에 특정된 직업 또는 전문 직종의 종사자*는 뉴질랜드에 입국 보장
 - * (한국인특정직업) 한국어강사, 태권도강사, 한국인 가이드, 한의사 등 4종 (전문 직종)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생명공학자, 산림과학자, 식품과학자, 수의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6종
- (농축수산업 훈련비자) 뉴질랜드 농축수산업 분야에서 한국에 연간 50명까지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위한 별도 비자 쿼터 제공

※ 참고 : 뉴질랜드의 무역협정 체결 현황

협정종류	체결국가	연도
뉴질랜드-호주 CER (Closer Economic Relationship)	호주	1983
CEP (Closer Economic Partnership)	호주, 싱가포르, 홍콩, 태국	2001~2011
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P4	브루나이, 칠레, 싱가포르	2006
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TPP P4 국가 외 미국, 페루, 캐나다, 멕시코,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진행 중
뉴질랜드-중국 FTA	중국	2008
뉴질랜드-말레이시아 FTA	말레이시아	2010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2010~2011
뉴질랜드-대만 ECA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대만	2014
뉴질랜드-GCC FTA	바레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2011 타결 비준 연기
뉴질랜드-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FTA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사태로 2014 협상 중단
뉴질랜드-인도 FTA	인도	2013 이후 협상 중단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중국, 한국, 일본, 아세안, 인도, 호주	진행 중

자료원: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II

한-뉴질랜드 FTA에 대한 현지 반응 조사

1. 조사개요

□ 추진 배경

- 한-뉴 FTA 타결과 관련, 현지 기업 및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FTA 효과 및 전망에 대한 현장 반응 분석

□ 추진 개요

① 설문조사

- (조사대상) KOTRA 오클랜드무역관 보유 바이어 약 1,300개사
- (응답자) 103개사
 - (업종별) 유통 33%, 무역 23%, 제조업 22%, 서비스(건설 포함) 9% 등
 - (취급품목별) 전기전자 20%, 플라스틱 17%, 자동차부품 10%, 철강·금속 10% 등
 - (주요 수입국별) 중국 36%, 한국 13%, 호주 13%, 유럽 9%, 일본 7% 미국 7% 등
-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 실시
- (조사기간) 2015년 2월 16일(월) ~ 27일(금) 10일간(근무일기준)
- (설문내용) 對한국 수입 확대 및 수입선 전환의사, FTA 효과에 따른 유망품목, 양국 간 투자 확대 전망, 한국인의 뉴질랜드 취업기회 전망 등

② 기업관계자 및 전문가 심층 인터뷰

- (조사방법 및 기간) 상동
- (조사대상) 7개사 기업 및 전문가 대표
- (인터뷰 내용) 한-뉴 FTA 타결 후 양국 간 교류 전망 및 FTA 활용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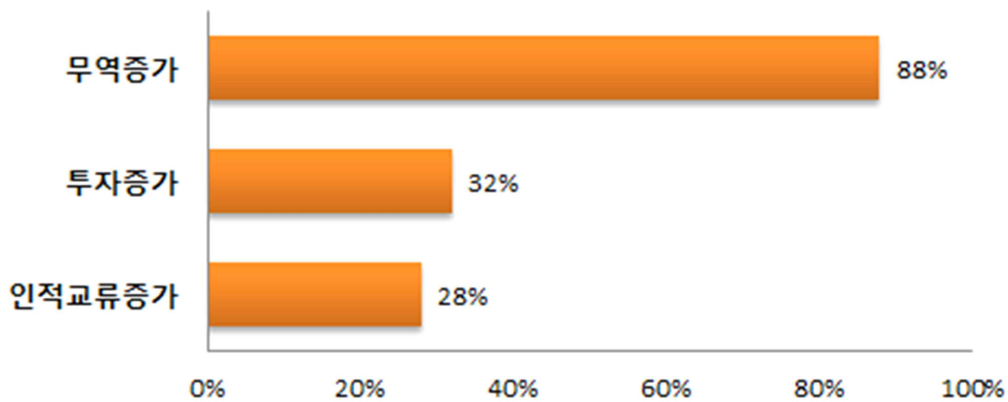
2. 설문조사 결과

① 상품 분야

□ 응답자 88%, “한-뉴 FTA로 양국 교역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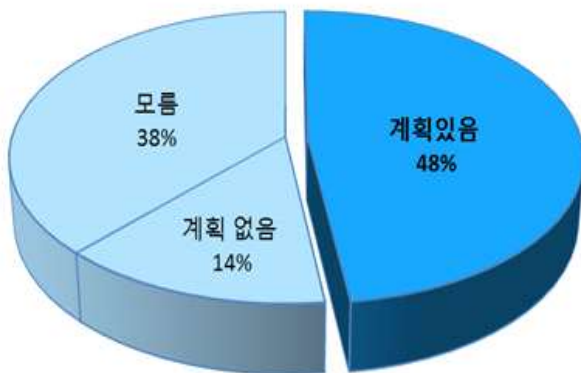
- 설문 응답자의 88%가 FTA로 인해 양국 간 상품교역이 증가할 것으로 답했으며, 투자나 인적교류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32%, 28%로 집계 (복수응답 가능)

<한-뉴 FTA가 양국 간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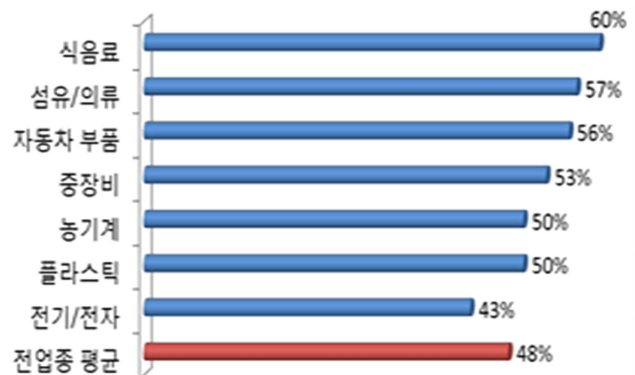


- 전체 응답자 중 48%가 對한국 수입물량을 늘릴 의사가 있다고 답변
 - 특히, 식음료, 섬유/의류, 자동차 부품 등에서 수출 확대 기대
 - * 품목별 수입확대 응답 : 식음료(60%), 섬유/의류(57%), 자동차부품(56%), 중장비(53%)

<FTA 타결에 따른 수입확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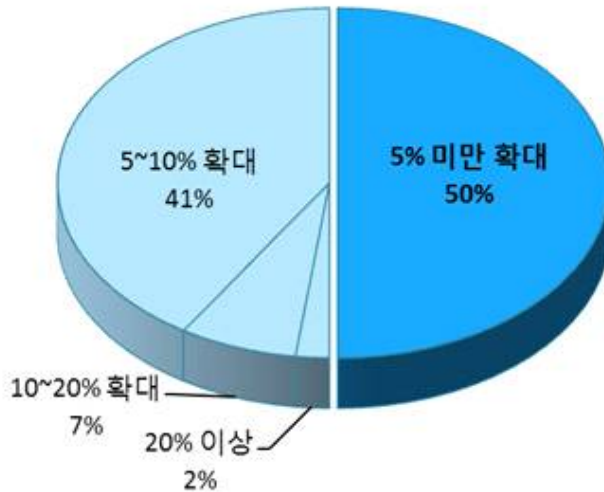


<주요 업종별 확대응답여부>



- 다만, 한국의 對뉴질랜드 수출 확대는 완만한 상승세일 것으로 전망
 - (수입확대 예상 규모) 5% 미만(50%), 5~10%(41%), 10~20%(7%) 순으로 응답

<수입확대 예상 규모>



□ 주요 기대효과, “한국산 제품 인지도 상승 및 한국으로의 거래선 전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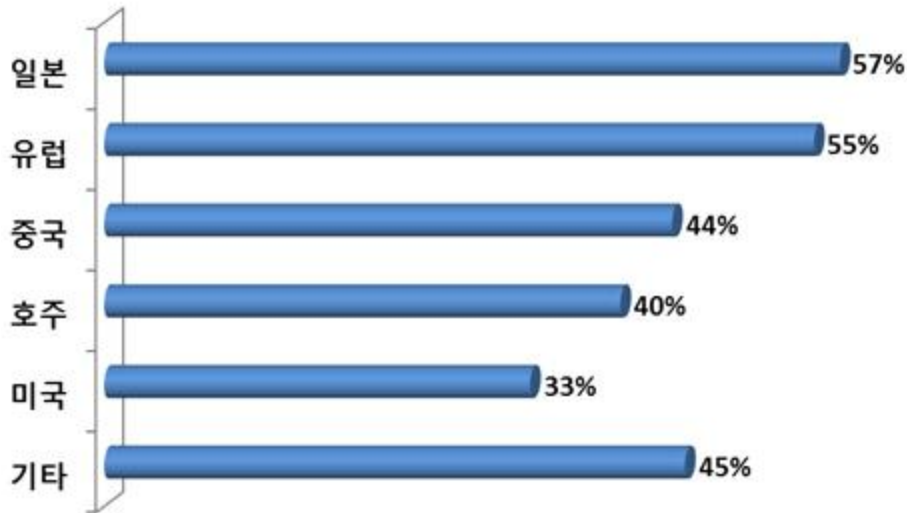
- 對한국 수입확대 및 거래선 전환의 주요 요인에는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상승(56%)이 1위로 꼽힘
 - 이는 관세철폐로 인한 가격인하(33%) 요인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한편, 타 수입국 바이어 48%가 한국으로 거래선 전환 의사가 있다고 응답
 - 기존 거래선은 일본(57%), 유럽(55%), 아세안, 남미 등의 기타 국가(45%) 등

<FTA 주요 영향 전망>

<현재 수입국으로부터의 거래선 전환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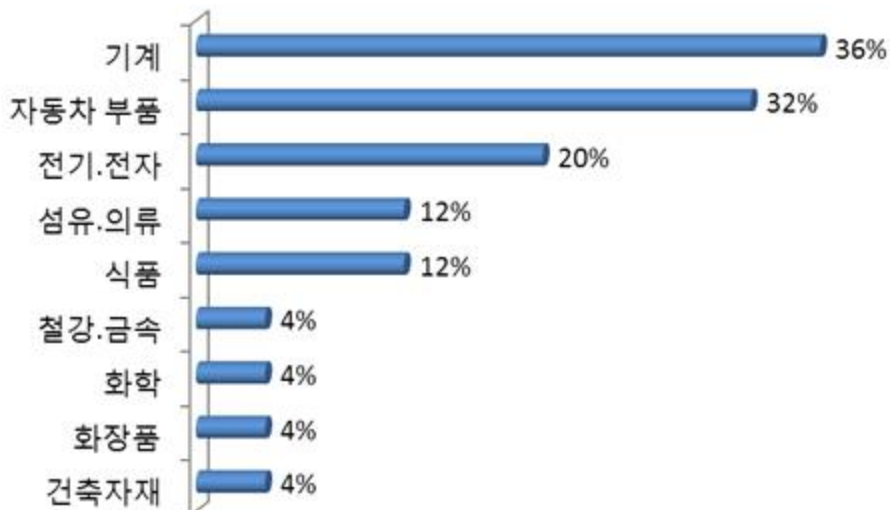
<주요 수입국별 거래선 전환 검토 비율>



□ 수출 유망품목, “가장 유망한 품목은 기계류(36%), 자동차 부품(32%) 등”

- (기계) 뉴질랜드 건설경기 호황과 낙농제품 수출 증가로 인한 관련 기계류의 수요 증가에 기인
- (자동차 부품) 최근 한국산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부품 수요 역시 증가세이며, 일부 부품들이 현재 5~10% 관세로 수입되고 있어 FTA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그 외에 전기/전자(20%), 섬유/의류(12%)순으로 수출 유망품목을 손꼽음.

<FTA 유망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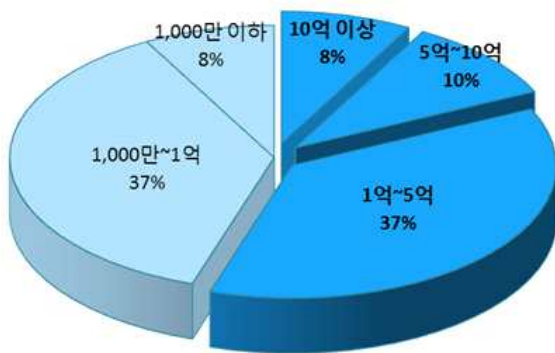


② 투자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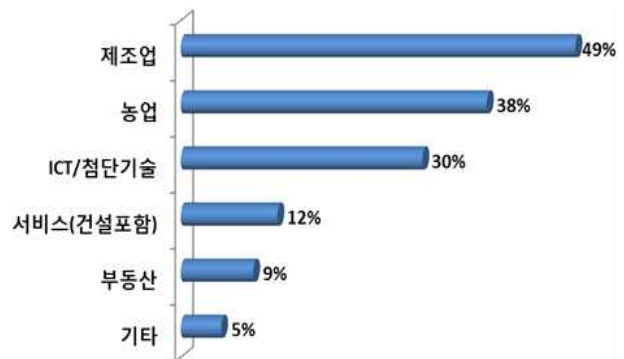
□ 양국 간 투자 1억 달러 이상 증가 예상, 산업별로는 제조업 분야가 1위

- 설문 응답자의 55%가 FTA 이후 양국 간 투자 금액이 1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답변
 - 세부 분야별로는 제조업(49%), 농업(38%), ICT/첨단기술(30%) 분야 순으로 투자 확대가 기대됨.
 - 응답바이어 중 일부는 실제 한국 제조업 투자를 준비 중이라고 응답

<FTA 이후 투자교류 예상 증가액>
(단위: US\$)



<FTA 이후 투자증가 전망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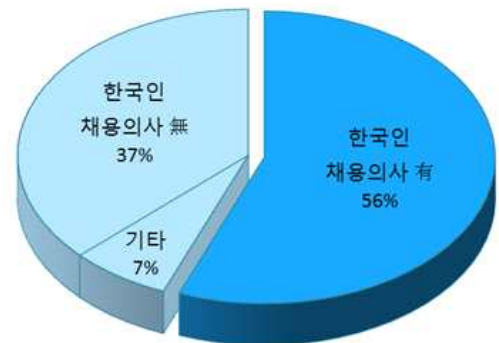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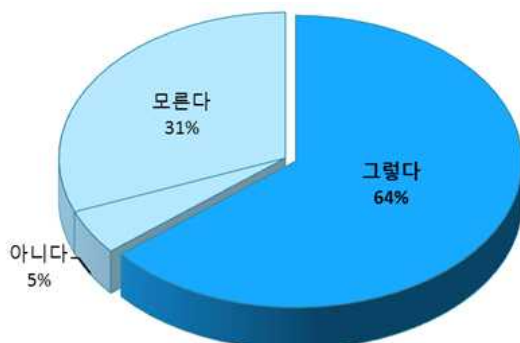


③ 인력교류 분야

□ 한국인의 뉴질랜드 내 취업기회 확대 기대

- 응답자의 64%, “한국인의 현지 취업 기회 증가” 전망
 -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군은 ICT 관련, 숙련 기술직군, 무역업종 등
 - 설문대상 기업의 56%, “FTA로 인해 필요할 경우, 한국인 채용 의사 有”

<FTA 이후 한국인의 뉴질랜드 취업 증가> <설문대상 기업의 한국인 채용의사>



3. 기업관계자 및 전문가 인터뷰 답변

- ◆ (대상) 건설, IT, 유통 등 업계 대표기업의 매니저급 이상 간부
- ◆ (내용) 한-뉴 FTA 체결 후 양국 교역전망, 활용 계획, 조언 등
- ※ 답변내용은 각 사의 공식 대외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응답자 이름은 비공개

□ Fletcher Building(현지 1위 건설사)

- 건설 주요자재 중 철강제품을 수입 중이며, 한-뉴 FTA 타결로 관세 즉시 철폐를 기대했으나 최대 7년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진 것이 안타까움
- 한편, 이번 FTA로 인해 양국 간 건설 프로젝트분야 교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사의 한국 건설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Snell Packaging&Safety(포장재 수입 유통 전문기업)

- 한-뉴 FTA 타결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며, 현재 한국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일부에 관세가 유지되고 있어, 이번 FTA로 인한 관세 철폐는 추후 對한국 수입 확대에 이어질 전망
- 특히, 현재 수입 중인 품목의 관세를 재검토하여 중국산 품목을 한국산으로 대체할 계획

□ ETEL(현지 최대 변압기 제조사)

- 한국과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 중으로 한-뉴 FTA는 반가운 소식임
- 對한국 수입 시 부과되던 5%의 관세가 FTA로 인해 인하된다면 품질이 월등한 한국산의 수입을 확대할 계획

□ Yes Shop(현지 유일의 TV 홈쇼핑업체)

- 對한국 수입 품목 중 절반은 관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관세율이 5% 정도로 큰 영향이 없는 상황이었음
- 수입확대 면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산에 대한 관세철폐에 따라 중국산과의 가격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

□ VR Group(현지 4대 호텔 체인 그룹)

- 한-뉴 FTA 타결과 함께 한국 청년의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근무제한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한국 청년들의 뉴질랜드 취업기회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연수·교육) 기존 3개월→6개월 / (고용) 동일직장에서 3개월 → 영구고용만 금지
- 과거 한국 청년을 대상으로 워킹홀리데이 채용을 시도했으나 3개월 근무제한 규정으로 인해 채용이 불발된 전례가 있었음. FTA가 정식 발효되면 근면하고 성실한 한국 직원 채용 확대를 추진할 예정

□ Ninjakiwi(현지 온라인 게임개발업체 1위)

- 능력 있는 한국 게임 개발업체와의 협력에 관심이 많으며, 한-뉴 FTA 타결로 한국인의 뉴질랜드 취업 기회가 확대될 경우 숙련된 한국인 게임 개발자 채용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 ANZ Bank(현지 최대 시중은행)

- 그간 양국 간의 물리적, 시간적 차이로 인해 한국에 대해 관심이 적었으나 한-뉴 FTA를 계기로 서로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며 투자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고속도로나 해저터널과 같은 뉴질랜드 내 대형 인프라 건설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III

한-뉴질랜드 FTA 중소기업 수출 유망품목

1. 조사 개요

□ 조사 방향

-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장벽이 높지 않은 수준으로 FT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보다는 한국이 주요 교역 파트너라는 인지도 제고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
- 이러한 배경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심층면담 및 한국산과 경쟁국산의 비교를 통해 한-뉴 FTA로 혜택을 누릴 중소기업 수출품목을 조사함.

※ 선정 기준

- ① 뉴질랜드의 對한국 수입 100대 품목('14년 기준)에 속한 중소기업 품목 중 실질적인 FTA 관세 인하 수혜품목
- ② 최근 뉴질랜드 경제 견인 3대 분야(농업, 건설, 내수) 관련 품목
- ③ 뉴질랜드와 FTA 기체결 경쟁국(특히, 중국)과의 시장점유율 격차 회복 가능 품목
- ④ 對뉴질랜드 시장 수출경쟁력 참고(시장비교우위지수 활용)
 - * MCA(Market Comparative Advantage) 지수 : 한국의 품목별 뉴질랜드 수입시장점유율과 전품목에 대한 한국의 뉴질랜드 수입시장점유율을 비교하여, 1보다 크면 뉴질랜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

2. 수출 유망품목별 세부내용

<한-뉴 FTA 중소기업 수출 유망품목 요약>

(단위: US\$ 백만, %)

산업	품목명 (HS CODE)	기준 세율	양허 스케줄	'14 對뉴 수출액 (증가율)	MCA 지수	유망사유
자동차 부품	브레이크 패드 및 슈 (8708.30)	5	3년 철폐	0.57 (9.06)	0.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 상승으로 한국산 자동차 부품 수요 동반 상승 시장진입 장벽이 낮아 가격이 민감한 품목으로 관세 철폐 시 가격경쟁력 제고
	시동용 배터리 (8507.10) (8507.20)	10 /5 ⁵⁾	3년 철폐/ 즉시 철폐	0.08 ⁶⁾ (-10.69)	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산 자동차 수입점유율 상승으로 관련 부품 수요 동반 상승 가격경쟁이 매우 치열하여 관세 인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
석유 화학	유기계면 활성제 (3402.20)	5	즉시 철폐	4.57 (-0.02)	1.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질랜드 내 다수의 세제 제조사가 있어 원료 수요 증가 산업용에서 가정용까지 용도가 다양하여 진출 여지 높음
	PVC 랩 (3920.43)	5	즉시 철폐	0.27 (28.02)	0.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질랜드 식품산업 성장으로 관련 포장재의 수요 증가 FTA로 관세가 철폐되어 가격경쟁력 향상
식품	인스턴트 라면 (1902.30)	5	즉시 철폐	4.01 (1.04)	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로 특히, 인스턴트라면 등 일부 품목은 주류 식품 유통망에 진출하여 판매 중 FTA로 가격인하 효과가 있어 수요

						증가 예상
기계	배전용 변압기 (8504.23)	5	7년 철폐	10.82 (169.12)	7.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이 뛰어난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현지 바이어 수요가 높으며 FTA로 관세가 인하되면 수입이 더욱 증가할 전망
	중장비 부착품 (8431.41)	5	3년 철폐	0.62 (68.17)	1.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 건설경기 호황으로 관련 기계 수요 증가 ▪ 가격경쟁이 매우 치열한 품목으로 관세 인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
건축 자재	철강제품 (7326.19)	5	즉시 철폐/ 7년 철폐 ⁷⁾	0.16 (-36.72)	0.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 건설경기 호황으로 관련 건설자재 수요 증가 ▪ 관세 철폐가 7년에 걸쳐 진행되어 단기간의 수출 증가요인은 낮으나 철강제품의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 기대
섬유, 의류	양모사 (5107.10)	5	7년 철폐	0.88 (-56.94)	1.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경쟁이 매우 치열한 품목으로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 ▪ 기체결국인 중국에 빼앗긴 시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기타	사무용 의자 (9401.30)	5	즉시 철폐	0.18 (-21.05)	0.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 경기호황으로 신규 사무용 가구 및 집기류의 수요 증가 ▪ 바이어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 기대

5) HS CODE 8507.10 - 10%, 3년 철폐 / HS CODE 8507.20 - 5%, 즉시 철폐

6) 뉴질랜드 수입 통계에서는 8만 달러로 집계되지만, 한국 KITA 통계에 따르면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의 뉴질랜드 수출액이 1,800만 달러로 집계

7) 7326.19.11 - 5%, 7년 철폐 / 7326.19.19 - 5%, 즉시 철폐

자동차부품

① 브레이크 패드

품목명	브레이크 패드 및 슈	HS CODE	8708.30
기준세율	5%	관세철폐 스케줄	3년 철폐 ⁸⁾
유망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 내 중고차량의 비율이 높고 노후화가 심해 소모성 자동차 부품 수요 증대 ▪ 한국산 자동차 시장점유율이 지속 상승함에 따라 한국산 부품에 대한 인지도 및 수요 역시 증가 ▪ 시장진입 장벽이 기타 부품에 비해 낮고 가격이 민감한 품목으로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이 국내제품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수입동향

- 전체 수입규모는 2014년 기준 약 US 3,700만 달러 수준으로 전년대비 10.5% 증가
 - '14년 중국이 수입시장 점유율 26%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뒤로는 독일, 일본, 미국 등 주요 완성차 수입국에서의 브레이크 패드 수입이 높은 것으로 확인

- 완성차 수입 4위 국가인 한국의 경우, 브레이크 수입액이 2014년 US 57만 달러 수준으로 낮은 편이긴 하나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세 시현
 - 수입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 한국산을 찾는 바이어가 늘고 있어 시장 전망은 밝은 편

8) 발효즉시 3.3%로 인하, 2년차에 1.7%로 인하, 3년차 1.1일부로 무관세

<주요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US\$ 천, %)

순위	국가	금액			점유율			증감률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14/13
	총계	32,768	33,485	36,986	100.00	100.00	100.00	10.46
1	중국	7,171	7,545	9,630	21.88	22.53	26.04	27.65
2	독일	3,997	4,951	5,482	12.20	14.79	14.82	10.72
3	일본	4,101	3,860	3,896	12.52	11.53	10.53	0.92
4	미국	4,417	3,887	3,839	13.48	11.61	10.38	-1.25
5	호주	4,455	3,746	3,388	13.59	11.19	9.16	-9.56
6	영국	1,531	1,962	2,140	4.67	5.86	5.79	9.08
7	이탈리아	1,027	1,187	1,737	3.14	3.54	4.70	46.39
8	스페인	1,251	897	1,261	3.82	2.68	3.41	40.53
9	대만	1,221	1,190	1,237	3.73	3.56	3.35	3.94
10	태국	678	1,049	981	2.07	3.13	2.65	-6.50
11	한국	428	522	569	1.31	1.56	1.54	9.06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주요 바이어 반응

기업명	New World Motors	특기사항	자동차 부품, 소모품 수입업체
매출규모	NZ\$ ⁹⁾ 400만('13년)	품목	자동차 부품, 윤활유
한-뉴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한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어 한국산 부품 및 소모품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자동차 관련 품목 중 브레이크 패드에 대한 관세가 유지되고 있어 FTA로 인한 관세철폐는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격차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 		
한국산 제품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시장에 많은 경쟁자들이 있어 이들과 차별화되는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갖춰야 함. 뉴질랜드는 다양한 차종이 수입되어 운행 중에 있으므로 품목 군을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대부분 현지 바이어들이 소량 구매하는 경향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 		

9) NZ\$ 1 = 823.07원 ('15. 3. 18. 기준)

기업명	Partmaster	특기사항	뉴질랜드 3위 업체
매출규모	비공개	품목	자동차 부품, 소모품
한-뉴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중국 제품을 OEM 형태로 수입하고 있으며, 관세인하로 중국산과의 가격 격차가 줄어들 경우 한국산으로 전환할 계획 ▪ 한국산의 경우 대부분 완성차 순정품 위주로 수입되고 있어, FTA로 인해 한국산 애프터마켓 부품의 수요 증가 예상 		
한국산 제품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기술이 크게 향상되었고 바이어의 까다로운 조건(가격, 수량, 품질 등)을 잘 맞춰주고 있음. 따라서 중국과의 경쟁을 이기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바이어 입장을 적극 고려하며 준비해야 함 		

□ 한국산 진출기회 분석 및 진출방안

- 브레이크 패드는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대표적인 차량 소모품으로 수요가 많고 시장 내 경쟁도 심함. 특히, 시장지배 브랜드가 없어 미세한 가격 차이가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침
 - FTA 발효 시 5% 관세가 3년에 걸쳐 철폐됨에 따라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상승이 예상되며, 현재 중국과 거래하는 바이어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FTA로 발생한 관심을 실제 구매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고급형과 저가형의 투트랙 전략으로 시장 진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
 - 현지 유통업체들이 중국에서 저가형 제품을 OEM방식으로 수입하여 유통하고 있으며 고급형 브랜드 제품을 호주나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이러한 시장 틈새를 잘 공략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② 시동용 배터리

품목명	엔진 시동용 배터리	HS CODE	8507.10 8507.20
기준세율	8507.10 - 10% 8507.20 - 5%	관세철폐 스케줄	8507.10 - 3년 철폐 ¹⁰⁾ 8507.20 - 즉시 철폐
유망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 자동차 수입점유율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산 부품 및 배터리 등의 수요 역시 늘어나는 추세 ▪ 가격경쟁이 매우 치열한 품목으로 관세인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 기대 		

□ 수입동향

- 전체 수입규모는 2014년 기준 약 US 2,300만 달러로 전년대비 9.5% 증가
 - 뉴질랜드 수입 통계에서 한국산 자동차용 배터리는 '14년 약 US 8만 달러 수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되나, 한국 무역협회 수출통계에 따르면 '14년 뉴질랜드 수출금액은 약 US 1,800만 달러 수준*

* 현지 바이어에 따르면, 이는 한국산 배터리의 경우 5~10% 관세가 부과되어 이를 피하기 위해 무관세 통관이 가능한 다른 HS CODE 품목으로 수입되고 있기 때문임

10) 발효즉시 3.3%로 인하, 2년차에 1.7%로 인하, 3년차 1.1일부로 무관세

<주요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US\$ 천, %)

순위	국가	금액			점유율			증감률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14/13
	총계	22,543	20,872	22,857	100.00	100.00	100.00	9.51
1	중국	10,693	8,901	9,211	47.44	42.65	40.30	3.49
2	미국	4,145	4,281	3,911	18.39	20.51	17.11	-8.66
3	태국	2,052	2,578	2,638	9.10	12.35	11.54	2.33
4	독일	1,875	1,989	1,775	8.32	9.53	7.77	-10.76
5	호주	1,431	1,434	1,495	6.35	6.87	6.54	4.31
6	영국	67	114	1,219	0.30	0.55	5.33	968.98
7	대만	258	462	738	1.15	2.22	3.23	59.67
8	싱가포르	63	15	238	0.28	0.07	1.04	1496.31
9	필리핀	282	98	230	1.25	0.47	1.01	133.48
10	아랍에미리트	0	0	214	0.00	0.00	0.94	0.00
16	한국	494	93	83	2.19	0.45	0.36	-10.69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주요 바이어 반응

기업명	Century Yuasa NZ	특기사항	자동차 배터리 수입 1위 업체
매출규모	NZ\$ 2,900만('11년)	품목	자동차용 배터리
한-뉴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Yuasa 그룹의 뉴질랜드 지사로서 한국에서 배터리를 수입하여 유통. 한국 제품의 뛰어난 품질과 기술력에 관세 인하 효과까지 더해진다면 한국산 수입을 확대할 계획 		
한국산 제품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질랜드 자동차 관련제품 시장은 가격에 매우 민감한 편으로 이 부분에 잘 대응해야 함 현지 유통업체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므로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잘 유지해야 함 		

기업명	SuperCheap Auto	특기사항	자동차 소모품 도소매 유통
매출규모	비공개	품목	부품, 소모품, 배터리
한-뉴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주계 자동차 부품 및 소모품 유통업체로 주로 호주를 통해 제품을 들여오고 있으며, 한국산 배터리 또한 호주 본사를 통해 OEM으로 수입하여 뉴질랜드에 유통 한국의 對뉴질랜드, 對호주 FTA로 인해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한국에서의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 		
한국산 제품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현지 유통망 확보가 중요 		

□ 진출기회 분석 및 진출방안

- 한국산 자동차용 배터리는 주로 OEM 방식으로 공급 및 유통
 - 현지 소비자들에게는 한국 브랜드가 알려져 있지 않아 한국산이 많이 수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
- 뉴질랜드에서는 높은 인건비 등의 이유로 DIY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비교적 교체가 간단한 자동차 배터리 역시 직접 소매점에서 구매하여 교체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현지 업체 대상의 OEM 제품전략과 일반 소비자 대상의 브랜드 제품 전략의 투트랙 방식으로 진출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사료됨.

석유화학

③ 유기계면활성제

품목명	유기계면활성제	HS CODE	3402.20
기준세율	5%	관세철폐 스케줄	즉시 철폐
유망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 내 다수의 세제 제조사가 존재하며 원료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 ▪ 산업용에서 가정용까지 용도가 다양하여 진출 여지 다대 		

□ 수입동향

- 2014년 전체 수입규모는 약 US 6,7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6% 증가
 - 무관세를 적용받는 호주가 총 수입의 약 53%, 이어 중국(10.5%), 미국 (7.6%) 등이 뒤를 이음.
 - '14년 한국산 수입액은 예년과 비슷한 US 460만 달러 수준으로, 시장 점유율 6.8%, 수입국 4위 유지
- 계면활성제는 일반 가정용 세제 뿐 아니라 산업용 세척제, 섬유, 우레탄수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
 - 현지 생산은 대부분 가정용 제품에 집중되어 있고, 농업/산업용 세척제 제조사 일부가 존재
 - 한국 제품은 대부분 중간재 원료 형태로 수입되어 현지 제조사에서 완제품으로 제조되고 있으며, 완제품 수입은 미미한 편임.

<주요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US\$ 천, %)

순위	국가	금액			점유율			증감률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14/13
	총계	73,112	65,078	67,409	100.00	100.00	100.00	3.58
1	호주	49,488	36,972	35,731	67.69	56.81	53.01	-3.35
2	중국	4,828	5,874	7,064	6.60	9.03	10.48	20.27
3	미국	3,511	3,742	5,139	4.80	5.75	7.62	37.35
4	한국	3,219	4,571	4,570	4.40	7.02	6.78	-0.02
5	폴란드	1,765	2,301	3,169	2.41	3.54	4.70	37.74
6	독일	2,266	2,584	2,415	3.10	3.97	3.58	-6.53
7	인도네시아	969	2,146	2,148	1.33	3.30	3.19	0.08
8	영국	3,046	1,928	1,981	4.17	2.96	2.94	2.76
9	네덜란드	473	800	748	0.65	1.23	1.11	-6.48
10	말레이시아	161	416	605	0.22	0.64	0.90	45.47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주요 바이어 반응

기업명	E社	특기사항	세계 제조업체
매출규모	비공개	품목	계면활성제
한-뉴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한국에서 계면활성제 원료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최근 한국 시장에 자사 제품 수출을 시작하여 한국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으로 전망 한-뉴 FTA로 양국 간 관세가 철폐되면 한국에서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한국산 제품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질랜드에 수입되는 한국산은 대부분 중간재 원료인 관계로 가격에 민감함 		

기업명	U社	특기사항	계면활성제 제조업체
매출규모	NZ\$ 3억(14년)	품목	계면활성제
한-뉴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에서 계면활성제 원료를 수입하여 세탁용 세제 생산 FTA로 관세가 인하되면 자사 제품의 생산원가 하락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므로 한국산 원료의 수입 확대 전망 		
한국산 제품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산 제품은 대부분 원료 형태로 수입되고 있어 완제품으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힘써야 함. 		

□ 진출기회 분석 및 진출방안

- 시장 지배적인 브랜드가 없어 유통업체의 영향력이 큰 시장임
 - 관세 철폐로 가격경쟁력 개선이 예상되나, 가정용의 경우 중국산, 태국산 글로벌 브랜드 제품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으므로 중간재나 산업용을 우선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가정용 완제품의 경우는 현지 소비시장에 영향력이 높은 대형 유통업체 (Foodstuff, Progressive 등)를 통한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PB(Private Brand)제품을 활용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

④ PVC 랩

품목명	PVC 포장용 랩	HS CODE	3920.43
기준세율	5%	관세철폐 스케줄	즉시 철폐
유망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질랜드 식품산업 성장으로 관련 부자재인 포장용 랩의 수요 증가 FTA로 기존의 5% 관세가 완전 철폐되어 가격경쟁력 향상 		

□ 수입동향

- PVC 랩 전체 수입은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전년대비 11.5% 증가한 US 813만 달러 기록
 - '14년 전체 수입의 약 64.2%를 호주가 차지, 중국(11.3%), 대만(6.1%) 순으로 수입
 - 한국산 제품의 '14년 시장점유율은 3.3%에 불과하나,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세 시현

<주요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US\$ 천, %)

순위	국가	금액			점유율			증감률 14/13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총계	6,197	7,295	8,133	100.00	100.00	100.00	11.49
1	호주	4,065	5,063	5,219	65.59	69.41	64.17	3.08
2	중국	537	494	922	8.66	6.77	11.33	86.68
3	대만	625	408	499	10.08	5.60	6.13	22.14
4	이스라엘	383	494	497	6.17	6.77	6.11	0.62
5	한국	127	209	268	2.04	2.87	3.30	28.02
6	태국	61	244	252	0.98	3.35	3.09	3.12
7	스위스	77	60	153	1.24	0.82	1.89	157.20
8	미국	39	74	81	0.63	1.02	1.00	9.84
9	영국	44	38	80	0.71	0.52	0.99	111.07
10	네덜란드	76	61	53	1.22	0.83	0.65	-12.36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주요 바이어 반응

기업명	E사	특기사항	포장용 랩 제조/유통업체
매출규모	비공개	품목	PVC 랩
한-뉴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한국산 제품이 좋은 반응을 받고 있으며 관세인하로 가격하락 효과가 발생 시 수입이 더욱 늘어날 전망 		
한국산 제품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뉴질랜드에서 PVC 관련 제품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이슈가 제기된 바 있어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제품으로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해당 제품은 주로 랩핑 기계에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산 제품이 현지 기계와 사이즈가 맞지 않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현지 규격화가 필요 		

기업명	O社	특기사항	포장재 수입/유통업체
매출규모	비공개	품목	PVC, PE
한-뉴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과 접촉하는 포장재의 경우 품질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한국산 품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이에 따라, 관세인하로 가격하락 시 한국 제품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한국산 제품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는 식품안전에 관한 높은 관리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식품포장재에 대한 인증이 필수임. 뉴질랜드 진출을 원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부분에 대한 준비가 우선되어야 함. 		

□ 진출기회 분석 및 진출방안

- 뉴질랜드 식품 관리 기준은 매우 엄격하며 식품과 접촉하는 포장재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인증 확보가 필수임.
 - 식품포장재 인증은 미국 FDA 인증 또는 호주 인증이 필요하며 관련 내용은 뉴질랜드 MPI 산하 식품안전청¹¹⁾에서 확인 가능
 - 최근 뉴질랜드에서 PVC 랩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이슈가 있어 수출 전 친환경 인증 획득 필요
- 뉴질랜드에서 사용되는 PVC 랩 대부분이 기계로 랩핑 하는 방식이므로 관련 랩핑 포장기계와 함께 뉴질랜드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
 - 일부 바이어들이 한국산 제품과 뉴질랜드 기계가 호환되지 않는 부분을 문제점으로 제기한 적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

식품

⑤ 인스턴트라면

품목명	인스턴트라면	HS CODE	1902.30
기준세율	5%	관세철폐 스케줄	즉시 철폐
유망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인구의 증가로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아시아계 인구 뿐 아니라 현지인들도 즐기는 음식 문화로 자리 잡은 상태이며, FTA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수입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기대 		

11) MPI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1차산업부)

□ 수입동향

- 2014년 전체 수입액은 약 US 4,100만 달러이며 이 중 호주산이 US 1,254만 달러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
 - 아시아계 이민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중국, 한국 등 아시아 제품의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주요 슈퍼마켓 체인에서도 인스턴트라면이 주류 식품코너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브랜드 제품들이 현지 제품과 함께 유통되고 있음.

- '14년 3대 수입국의 수입액이 모두 감소한 반면, 한국산 제품은 우수한 품질과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최근 3년간 안정적인 시장점유율 증가세를 시현하며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음.

<주요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US\$ 천, %)

순위	국가	금액			점유율			증감률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14/13
	총계	43,547	42,314	41,086	100.00	100.00	100.00	-2.90
1	호주	15,286	13,686	12,542	35.10	32.35	30.53	-8.36
2	인도네시아	5,968	6,480	6,104	13.71	15.32	14.86	-5.81
3	태국	6,128	5,748	5,727	14.07	13.59	13.94	-0.37
4	한국	4,059	3,966	4,007	9.32	9.37	9.75	1.04
5	중국	3,733	3,240	3,649	8.57	7.66	8.88	12.61
6	말레이시아	3,420	3,618	3,041	7.85	8.55	7.40	-15.96
7	이탈리아	1,560	2,290	1,756	3.58	5.41	4.27	-23.33
8	싱가포르	1,087	1,145	1,419	2.50	2.71	3.46	23.99
9	대만	340	319	826	0.78	0.76	2.01	158.74
10	인도	553	328	421	1.27	0.78	1.03	28.26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주요 바이어 반응

기업명	Q社	특기사항	아시안 식품 수입 유통업체
매출규모	비공개	품목	쌀국수, 김, 알로에음료 등
한-뉴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산 식품이 다른 아시아 식품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반면, 널리 알려지지 않아 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있음 한국으로부터 현재 조미 김을 수입하고 있으며, 한국산 면류에 부과되던 관세가 철폐될 경우 가격경쟁력이 개선될 것이므로 수입 확대 및 다양한 식품에 대한 신규 수입 등의 긍정적인 검토 가능 		
한국산 제품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백인들은 쫄깃쫄깃한 면발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 현지에 유통되는 타 브랜드의 면발이 대부분 찰기가 없는 편임. 이러한 부분을 유념하여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제품 개발이 필요 		

기업명	O社	특기사항	아시안 식품 수입 유통업체
매출규모	NZ\$ 1,000만('14년)	품목	만두, 국수, 라면, 소스
한-뉴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대형유통업체인 Foodstuff에 용기면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로 유럽계 식품 위주이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아시아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FTA로 한국산 라면의 관세가 철폐되면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하여 타 브랜드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 다만, 가격 외에 호주-뉴질랜드의 식품규정조건 등도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시장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음. 		
한국산 제품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에 유통되는 인스턴트라면류는 인도네시아, 태국 브랜드가 많으며, 현지인 입맛에 맞게 변형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어 이점을 본받아야 함. 한국산 제품은 포장이나 라벨표기 등을 100% 영문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함. 현지인들의 아시아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는 하나 한국어로 뒤덮인 포장 때문에 소비자들이 꺼리는 경우도 있다고 함. 		

□ 진출기회 분석 및 진출방안

- 관세철폐 효과와 뉴질랜드 소비자들의 아시아 식품 수요 증가가 맞물려 시장점유율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현지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와 아시아 식품유통 전문업체를 우선 공략하는 것이 필요
 - 특히, 한국 식품 인지도가 높지 않아 현지 마케팅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Foodstuff, Progressive 등의 대형 유통체의 PB제품으로 진출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임.
- 현지 백인들의 입맛을 연구하여 그들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
 - 호주-뉴질랜드 공통 식품규정인 FSANZ¹²⁾의 식품첨가물, 라벨링, 영양성분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

기계

⑥ 배전용 변압기

품목명	고압 배전용 변압기	HS CODE	8504.23
기준세율	5%	관세철폐 스케줄	7년 철폐 ¹³⁾
유망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이 뛰어난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현지 바이어 수요가 높으며 FTA로 관세가 인하되면 수입이 더욱 증가할 전망 ▪ 현지에 제조사가 존재하지만 제조하지 못하는 품목가짓수가 많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12) FSANZ(Food Standard Australia New Zealand)

13) 발효즉시 4.3%로 인하, 2년부터 6년까지 동일한 비율로 인하, 7년차 1.1일부로 무관세

□ 수입동향

- 2014년 전체 수입액은 US 3,437만 달러로 전년대비 1.8% 감소했으며, 인도네시아가 49%로 수입시장 1위 기록
 - 한국산 수입은 '14년 US 1,082만 달러로 수입시장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6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 뉴질랜드에도 일부 변압기 제조업체가 있으나 대부분 제조가 간단한 유입식 변압기를 생산하고 있고 건식 변압기는 전량 수입에 의존
 - 유입식 변압기는 제조가 쉽고 사용범위가 넓은 장점이 있으나 화재에 취약한 반면, 건식 변압기는 제조가 까다로우나 화재 염려가 없음

<주요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US\$ 천, %)

순위	국가	금액			점유율			증감률 14/13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총계	29,403	34,984	34,370	100.00	100.00	100.00	-1.75
1	인도네시아	18,605	22,899	16,944	63.28	65.46	49.30	-26.01
2	한국	3,155	4,019	10,816	10.73	11.49	31.47	169.12
3	베트남	1,599	2,606	3,835	5.44	7.45	11.16	47.15
4	중국	0	1,724	1,405	0.00	4.93	4.09	-18.52
5	태국	6,045	0	1,370	20.56	0.00	3.99	0.00
6	오스트리아	0	3,703	0	0.00	10.58	0.00	-100.00
7	아일랜드	0	33	0	0.00	0.10	0.00	-100.00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주요 바이어 반응

기업명	ETEL	특기사항	뉴질랜드 최대 변압기제조사
매출규모	NZ\$ 5,400만('14년)	품목	변압기
한-뉴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산 변압기에 부과되던 5% 관세가 FTA로 인해 7년에 걸쳐 철폐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기간이 길어 아쉽긴 하나 매년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임. 		
한국산 제품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산은 경쟁국인 중국, 일본산 대비 가격 부분이 취약한 편임. 최근 엔화 약세로 일본산에 비해서도 가격경쟁력이 약화된 점은 해결해야 할 부분임. 		

□ 진출기회 분석 및 진출방안

- FTA에 따라 한국산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가격경쟁력이 높은 인도네시아, 중국산과의 경쟁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현지 제조사들이 자국 내 제조단가의 상승으로 제조업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어, 한국 기업과 현지 제조사 간의 협력방안을 통한 진출도 좋은 방법

⑦ 중장비 부착품

품목명	중장비 부착품 (어태치먼트)	HS CODE	8431.41
기준세율	5%	관세철폐 스케줄	3년 철폐 ¹⁴⁾
유망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재건사업과 오클랜드 도로, 주택건설 등 건설경기 호황으로 관련 기계 수요 증가 ▪ 가격경쟁이 매우 치열한 품목인 만큼 관세인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 기대 		

□ 수입동향

- 2014년 전체 수입은 뉴질랜드 건설경기 호황에 따라 전년대비 51% 증가한 US 735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임.
 - 對중국 수입이 '14년 전년대비 51% 가량 증가한 US 191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26%를 차지, 그 뒤로 프랑스(10.7%), 호주(9.9%), 한국(8.4%) 순
 - 한국은 '14년 기준 US 62만 달러로 수입시장점유율이 8%대에 불과하나 '14년에는 전년대비 약 68.2% 성장률을 보이는 등 상위권 수입국 중 가장 높은 증가세 시현
- 중장비 부착품은 주로 불도저, 굴삭기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제품들은 암석을 파괴하는 브레이커나 집게, 삽 등임

14) 발효즉시 3.3% 인하, 2년차에 1.7%로 인하, 3년차 1.1일부로 무관세

<주요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US\$ 천, %)

순위	국가	금액			점유율			증감률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14/13
	총계	3,245	4,884	7,354	100.00	100.00	100.00	50.58
1	중국	353	1,265	1,909	10.88	25.90	25.96	50.94
2	프랑스	264	509	787	8.12	10.42	10.70	54.65
3	호주	639	582	726	19.69	11.92	9.87	24.69
4	한국	309	367	616	9.53	7.51	8.38	68.17
5	독일	183	652	609	5.63	13.34	8.28	-6.60
6	인도	0	55	580	0.00	1.13	7.89	951.10
7	미국	324	581	455	9.97	11.89	6.19	-21.60
8	스웨덴	180	219	447	5.53	4.48	6.08	104.14
9	폴란드	0	74	262	0.00	1.52	3.56	252.48
10	이탈리아	38	106	257	1.18	2.18	3.49	141.73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주요 바이어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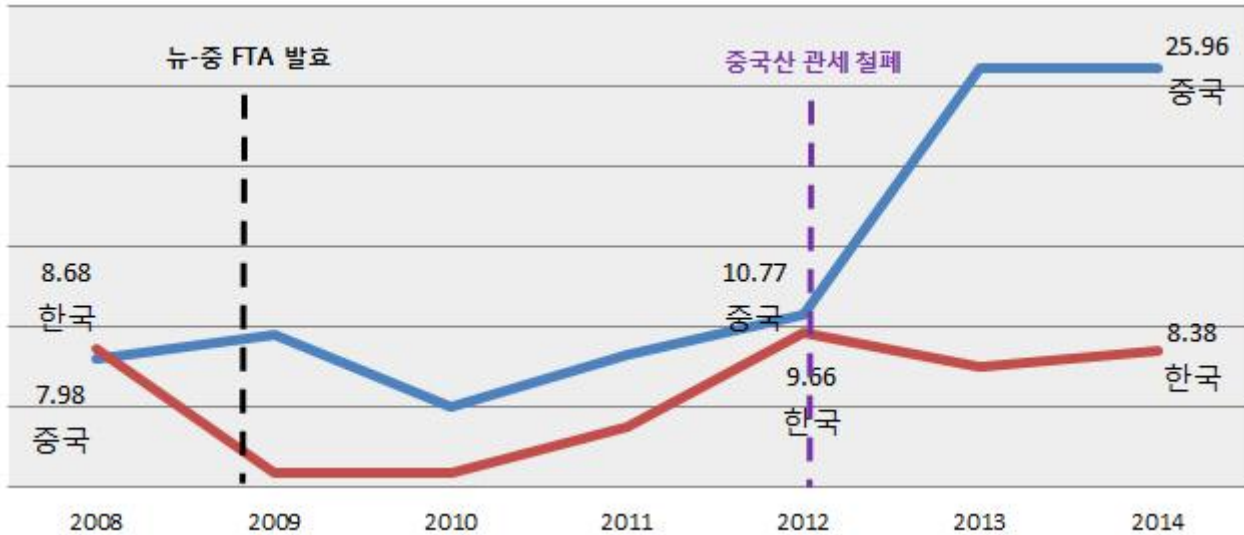
기업명	A사	특기사항	중장비 유통업체
매출규모	비공개	품목	중장비, 부품
한-뉴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로 관세인하 효과가 있긴 하나 즉시 철폐가 아닌 3년 철폐로 단기간 내 수입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함. ▪ 한국산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여 높은 가격에도 수요가 높은 편이라 한-뉴 FTA로 인한 가격하락 효과와 동시에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상승에 따른 수요증가 효과가 기대됨. 		
한국산 제품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유통업체들과의 긴밀한 관계가 중요하며 현지 업체들은 OEM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 이에 대응 필요 		

□ 진출기회 분석 및 진출방안

- 뉴질랜드 시장에서 한국산 중장비는 현대, 두산 등의 대기업 브랜드가 많이 알려져 있어 인식은 좋은 편
 - 다만, 현지 유통업체들이 자사브랜드를 부착하여 판매하려는 경향이 있어 한국 업체에 OEM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응 필요
 - OEM 유통과 자체 브랜드 유통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적절히 분배하여 진출하는 투트랙 전략도 좋을 것으로 판단됨.

- 한국산의 높은 인지도에 관세 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까지 더한다면 2012년 이후 벌어진 중국과의 시장점유율 격차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중국산 중장비 부착품이 뉴-중 FTA 발효('08.10월) 후 3년 뒤 관세철폐 시점부터 양국 간 수입 점유율 격차가 확대됨.

<한-중 중장비 부착품 수입점유율 변화추이>



자료원: World Trade Atlas

건축 자재

⑧ 철강제품

품목명	철강 제품 기타	HS CODE	7326.19
기준세율	5%	관세철폐 스케줄	7326.19.11 - 7년 철폐 ¹⁵⁾ 7326.19.19 - 즉시 철폐
유망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재건사업과 오클랜드 도로, 주택건설 등 건설경기 호황으로 관련 건설자재 수요 증가 ▪ 관세철폐가 즉시 혹은 7년에 걸쳐 진행되며, 철강제품의 꾸준한 수요로 지속적인 성장 전망 		

□ 수입동향

- 2014년 전체 수입은 US 1,247만 달러이며 전년대비 18.5% 증가
 - 중국산이 전체 수입의 62%를 차지하며 호주, 대만 순
 - 한국산 수입액은 2014년 기준 US 16만 달러, 수입시장점유율 1%로 낮은 편이나, 현지 바이어들에 의하면 한국산이 품질 면에서 우수하므로 가격에서 변동이 있다면 수입을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함
-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재건사업은 NZ 약 400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가며, 정부가 지진재건청을 신설하여 재건 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관련 건설자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15) 발효즉시 4.3%로 인하, 2년부터 6년까지 동일한 비율로 인하, 7년차 1.1일부로 무관세

<주요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US\$ 천, %)

순위	국가	금액			점유율			증감률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14/13
	총계	10,346	10,520	12,470	100.00	100.00	100.00	18.54
1	중국	5,535	5,628	7,720	53.50	53.50	61.91	37.18
2	호주	2,988	2,330	2,637	28.88	22.15	21.15	13.20
3	대만	206	957	649	1.99	9.09	5.21	-32.16
4	미국	220	229	278	2.13	2.18	2.23	21.57
5	영국	160	202	242	1.54	1.92	1.94	20.02
6	한국	161	257	163	1.56	2.45	1.31	-36.72
7	프랑스	87	119	136	0.84	1.13	1.09	14.26
8	태국	134	100	91	1.29	0.95	0.73	-9.19
9	독일	36	40	64	0.35	0.38	0.52	60.27
10	말레이시아	0	122	61	0.00	1.16	0.49	-49.91

자료원: World Trade Atl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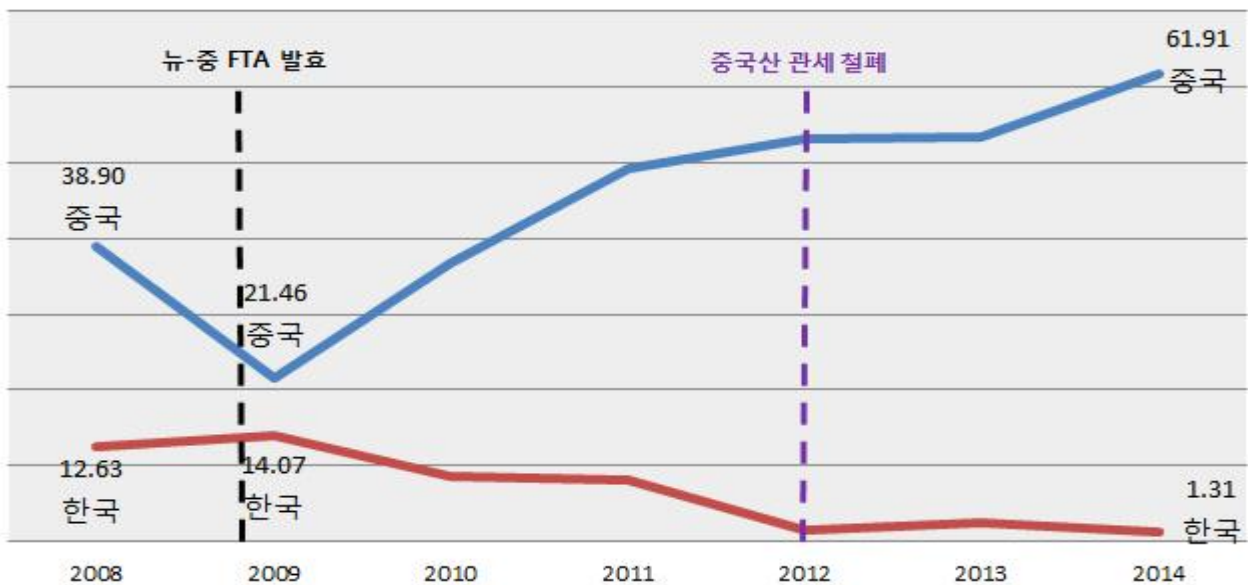
□ 주요 바이어 반응

기업명	K사	특기사항	철강제품 수입, 유통
매출규모	비공개	품목	철강제품
한-뉴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산을 주로 수입하고 있어 FTA 타결은 반가운 소식이나 일부 양허유형이 '7년 철폐'로 결정된 점은 매우 아쉬움. 한국산 제품의 품질이 우수함에도 가격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인하로 인한 가격하락은 한국산 수입 증가에 청신호가 될 것 		
한국산 제품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산의 품질은 이미 현지 수입 유통업체들에게 잘 알려져 있어 가격경쟁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 		

□ 진출기회 분석 및 진출방안

- 중국산 철강제품이 뉴-중 FTA 발효('08.10월) 이후부터 양국 간 수입 점유율 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관세철폐 시점인 2012년부터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한국산 철강제품이 즉시 혹은 7년간 관세가 인하될 예정으로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잠식당한 시장을 일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한-중 철강제품 수입점유율 변화추이>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한국산은 품질이 우수하여 선호도가 높은 편이나 시장이 작고 협소한 탓에 최소 주문량 요구가 많음
- 이에 대한 한국 업체와 바이어 간의 입장차가 커서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주요 경쟁국인 중국, 대만, 일본 등은 적은 주문량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어, 한국 업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섬유, 의류

⑨ 양모사

품목명	양모사	HS CODE	5107.10
기준세율	5%	관세철폐 스케줄	7년 철폐 ¹⁶⁾
유망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경쟁이 매우 치열한 품목으로 관세인하로 가격경쟁력 향상 기대 ▪ 기체결국인 중국에 빼앗긴 시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 수입동향

- 2014년 전체 수입은 약 US 1,260만 달러로 전년대비 약 2.9% 증가하였으며, 뉴질랜드 의류산업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수입되고 있음.
- 대부분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이는 뉴-중 FTA로 인한 관세 인하효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뉴-중 FTA의 양모사 관세는 한-뉴 FTA와 동일하게 7년간 유예한 바 있음.
 - 對중국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 2014년에는 중국과 한국의 뉴질랜드 시장 수입 점유율격차가 75%대 7%로 크게 벌어짐

<주요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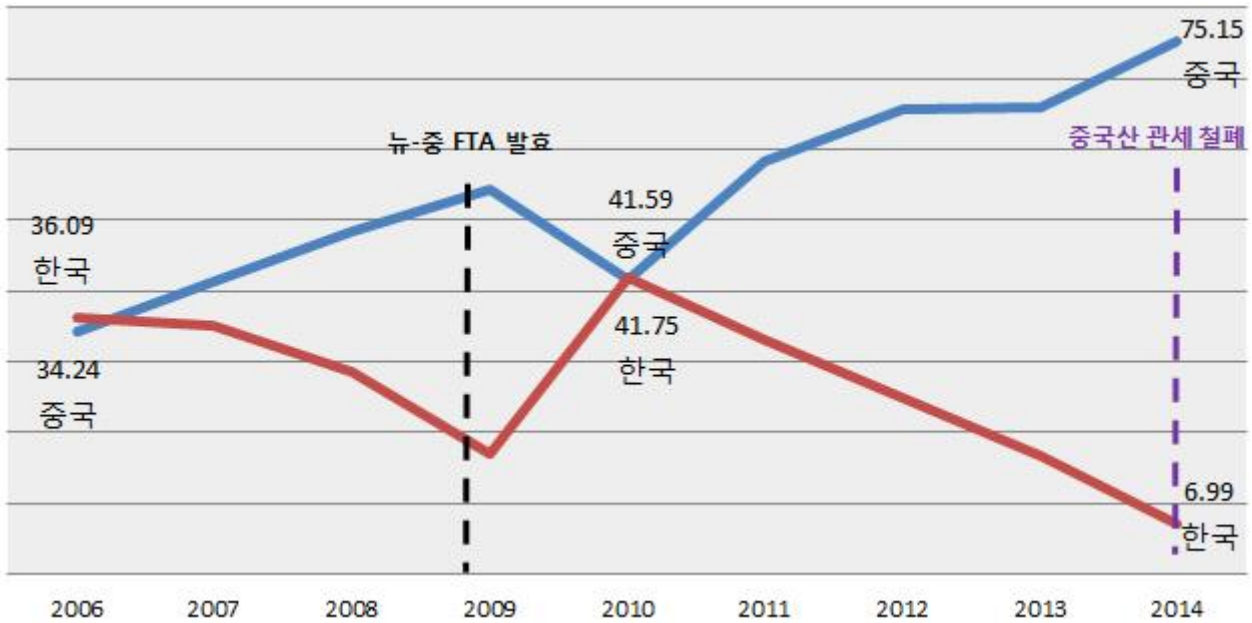
(단위: US\$ 천, %)

순위	국가	금액			점유율			증감률 14/13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총계	13,995	12,236	12,586	100.00	100.00	100.00	2.86
1	중국	9,115	7,982	9,458	65.14	65.24	75.15	18.49
2	한국	3,488	2,043	880	24.93	16.70	6.99	-56.94
3	인도	698	743	796	4.99	6.07	6.32	7.13
4	태국	0	12	675	0.00	0.10	5.36	5698.34
5	이탈리아	278	382	368	1.99	3.12	2.93	-3.67
6	오스트리아	124	121	226	0.89	0.99	1.80	86.66
7	체코	0	15	76	0.00	0.12	0.60	407.61
8	호주	190	194	48	1.36	1.58	0.38	-75.07
9	독일	9	18	30	0.06	0.15	0.24	67.60
10	뉴질랜드	50	19	12	0.35	0.16	0.10	-37.87

자료원: World Trade Atlas

16) 발효즉시 4.3%로 인하, 2년부터 6년까지 동일한 비율로 인하, 7년차 1.1일부로 무관세

<한-중 양모사 수입점유율 변화추이>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주요 바이어 반응

기업명	A사	특기사항	털실 수입, 유통업체
매출규모	비공개	품목	털실
한-뉴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산을 수입했으나 뉴-중 FTA로 관세가 인하되면서 중국으로 수입선을 전환함. 한-뉴 FTA로 관세가 인하되면, 중국산과의 가격격차가 줄어들게 되므로 다시 한국으로 수입선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음. 		
한국산 제품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품목은 가격에 매우 민감한 품목으로 관세 인하 외에도 가격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한국산 진출기회 분석 및 진출방안

- 2010년까지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매우 높았던 품목으로 한국산에 대한 현지 인식은 매우 좋은 편
 - FTA로 인한 관세인하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경우, 한국산 수입이 다시 늘어날 전망
- 관세가 7년에 걸쳐 인하되는 상황에서 이미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는 중국산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원가절감 등 자체적인 가격경쟁력 향상 노력이 필요

기타 품목

⑩ 사무용 의자

품목명	높낮이 조절 가능한 회전의자	HS CODE	9401.30
기준세율	5%	관세철폐 스케줄	즉시 철폐
유망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 경기호황으로 신규 사무용 가구 및 집기류의 수요 증가 ▪ 한국산 사무용 가구에 대한 바이어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이 국내제품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수입동향

- 전체 수입은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4년 수입액은 전년대비 24.4% 증가한 US 1,387만 달러를 기록
- 중국이 전체 수입대상국 중 1위(14년 기준 시장점유율 57.2%)를 기록
 - 대부분 OEM 형태이거나 글로벌 브랜드의 중국 현지공장제품인 것으로 확인
- 한국의 경우 수입액(US 18만 4,000 달러) 및 수입점유율(1.32%)은 낮은 편
 - 다만, 한국 퍼시스사의 시디즈 사무용 의자가 고급브랜드로 유통되고 있어 한국산 고급제품에 대한 바이어들의 수요는 꾸준한 편임

<주요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US\$ 천, %)

순위	국가	금액			점유율			증감률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14/13
	총계	10,010	11,155	13,871	100.00	100.00	100.00	24.35
1	중국	6,079	5,881	7,929	60.73	52.72	57.16	34.81
2	노르웨이	913	1,374	1,934	9.13	12.32	13.95	40.76
3	대만	1,206	1,196	1,602	12.05	10.72	11.55	33.89
4	말레이시아	479	1,245	1,066	4.79	11.16	7.69	-14.39
5	미국	516	620	356	5.16	5.56	2.57	-42.59
6	호주	49	67	234	0.49	0.60	1.69	251.56
7	독일	140	113	191	1.40	1.01	1.38	69.65
8	한국	106	233	184	1.06	2.09	1.32	-21.05
9	터키	0	21	143	0.00	0.19	1.03	579.47
10	이탈리아	159	24	123	1.59	0.21	0.89	415.53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주요 바이어 반응

기업명	Officemax New Zealand	특기사항	미국계 사무용품 유통업체
매출규모	비공개	품목	사무용품, 사무가구 등
한-뉴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산 사무용 의자는 디자인이나 내구성에서 만족스러운 품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FTA 타결로 관세가 철폐되어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게 될 경우, 한국산 수입을 확대할 계획임. 		
한국산 제품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글로벌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생산하여 들여오고 있어 한국 고유브랜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업명	Fuze Interiors	특기사항	사무가구 유통업체
매출규모	비공개	품목	사무용 가구
한-뉴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산 사무용 의자는 중고가 제품군으로 분류되는 등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는 좋은 편임. FTA로 가격인하 효과까지 발생할 경우 한국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한국산 제품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유통업체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대부분 유통업체들이 독점계약을 원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 필요 		

□ 한국산 진출기회 분석 및 진출방안

- 최근 뉴질랜드 경제가 호황인 상황에서 신규 사무용 가구 및 집기류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한국산의 현지 진출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이미 많은 해외 유명브랜드 제품이 중국 OEM형태로 수입, 유통되고 있어 이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
 - 현지 유통업체와의 긴밀한 관계가 중요시되며, 초기 시장진입을 위해 OEM방식도 좋은 진출 방안이 될 것임.

참고자료 한-뉴질랜드 교역 및 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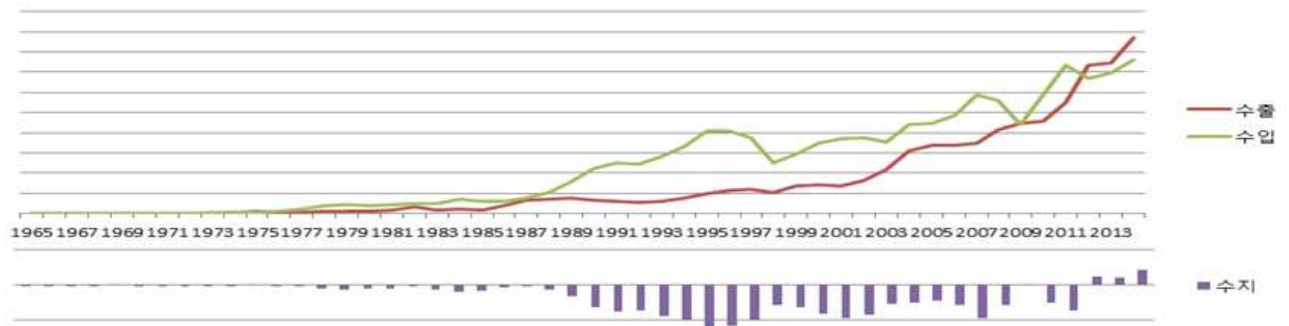
□ 교역 동향

- 양국 간 교역액은 '09년 이후 지속 증가하여, '14년 뉴질랜드는 한국의 교역대상국 40위 등극
- '14년 한국은 對뉴질랜드 교역에서 2억 400만 달러의 흑자 기록하며 '12년 이후 3년 연속 흑자 기조 유지
 - 對뉴질랜드 수출은 전년대비 16.1% 상승한 17억 3,000만 달러, 수입은 전년대비 9.4% 상승한 15억 2,600만 달러
 - * (주요 수출품) 휘발유, 자동차, 전자제품 등 공산품, (주요 수입품) 메탄올, 원목, 낙농품 등

<한-뉴질랜드 수출입 동향>

(단위: US\$ 백만,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 출	673 (0.4)	699 (3.9)	825 (18.0)	891 (8.0)	918 (3.1)	1,104 (20.2)	1,465 (32.7)	1,491 (1.7)	1,730 (16.1)
수 입	967 (8.6)	1,171 (21.1)	1,122 (-4.2)	879 (-21.6)	1,176 (33.7)	1,474 (25.4)	1,339 (-9.2)	1,395 (4.2)	1,526 (9.4)
무역수지	-294	-472	-297	12	-258	-370	126	96	204
총 교역액	1,640	1,870	1,947	1,770	2,094	2,578	2,804	2,886	3,256



주: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원: 무역협회

□ 주요 수출입 품목

<'14년 기준 對뉴질랜드 10대 수출입 품목>

(단위: US\$ 천, %)

수출품목	금액	비중	수입품목	금액	비중
휘발유	440,195	25.4	기타석유화학 제품	342,938	22.5
승용차	275,981	16.0	원목	342,211	22.4
경유	273,590	15.8	낙농품	141,357	9.3
건설 중장비	75,015	4.3	가축육류	123,443	8.1
제트유 및 등유	70,727	4.1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89,662	5.9
합성수지	55,650	3.2	펄프	74,872	4.9
동조가공품	43,624	2.5	과실류	48,492	3.2
기타어류	31,582	1.8	단백질류	36,671	2.4
화물자동차	29,136	1.7	제재목	32,652	2.1
타이어	20,091	1.2	고철	24,303	1.6
소 계	1,315,591	76.0	소 계	1,256,601	82.3
전 체	1,730,305	100.00	전 체	1,526,481	100.00

주: MTI 4단위

자료원: 무역협회

□ 투자 동향

- 양국 간 투자 실적은 상품교역에 비해 저조
 - '14년까지 한국의 對뉴질랜드 누적 투자액은 신고기준 5억 970만 달러, 뉴질랜드의 對한국 투자는 7,140만 달러 수준

<한-뉴질랜드 양국 간 투자 동향>

(단위: US\$ 천, 건)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누 계
뉴질랜드의 對 한국 투 자	168 (3)	471 (5)	57 (1)	340 (4)	30,718 (7)	359 (4)	458 (5)	495 (3)	932 (6)	71,403 (93)
한 국 의 對뉴질랜드 투 자	21,544 (28)	38,213 (34)	15,801 (27)	13,480 (13)	14,781 (20)	48,835 (22)	23,255 (16)	13,378 (27)	79,029 (19)	509,669 (556)

주: 신고금액, 신고건수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작 성 자

- ◆ 오클랜드무역관 김락곤 관장
- ◆ 선진시장팀 이병탁 사원

Global Market Report 15-014

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현지반응과
중소기업 수출유망품목

- 발 행 인 | 김재홍
- 발 행 처 | KOTRA
- 발 행 일 | 2015년 3월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 전 화 | 02) 1600-7119(대표)
-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Global Market Report